

고 박용길 장로님 추모예배 (추모사)

No. 1

2011. 9. 27. 기독교연합회관

박용길 장로님!

일찍이 초심왕지 못하고 이렇게 귀찮은 인생을
드리게 되어 머리를 긁적거렸읍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고 기뻐하였지만
여러분 임이전 가리지 못하고
언제나 고은것처럼에 영혼 미소를 머금은채
재촉하는 웃음으로 함께한 주님께 장로님이
이제 우리곁을 영영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참을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장로님도 60여년동안 뉘엿뉘엿 민주주의, 통일운동이
물어라한 주님과 두목이시라는 한몸처럼
모진 괴수배를 기꺼히
서로 뚫뚫하고 격려하며 같이 노력했습니다.

KEUN YOUNG

Date

반쪽인 몸집이 더우신 후에는
 그날 밤엔 잠까지 못자고 다녔는데
 장로님도 더욱 애타게 호소하셨고
 집사님들도 같이 하신 옥고도 미리 미리 감수하셨음.

장로의 후예같이 장로님도
 무척이로 소문난 권보부의 고문집대에서
 함입한 경험까지 다지었던 위대한

사람이 장로직을 주장하며 집을 찾아가
 어떤 하소하셨음.

장로님도 잊으셨지요!
 길거리에서 우리들에게 우연히 만나
 지로 장로님께 다짜고짜 물어 부러워
 주님께 감사드리고.

장로님도 비록이 같이 해주셨지만
필요하면 주저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지난날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잘 기억하고 양심수들의 고통과
같이 먹고, 옷고, 아픔을 나누는 활동의 적극적인 손길로
대응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을
형님의 어머니, 고난받는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개개인의 어머니로 추앙 받길 바랍니다.

장로님도 인격이 개개인을 매개로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귀감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평생을 직간직간 하신것의 눈이 밝은것을
장로님으로 이세상을 살 수있을 기원에
치어 라인을 가장 적게 쓰고 불어로 제기공이 수제하여 계신다

장로님이 즐기려 고안한 장로님들
인내를 친구들이 이해를 갖게 하고
죽음까지도 이것을 재생해서 이용할수있는것
이제 이해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장로교회로써 바리새교도 종교의 수장까지
대하여 성령으로, 신령의 영광 등으로 꾸며주신

어린아이들로 우리모두에게 감동을 안겨 주신 하신대로
장로님으로 받게하신 것인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저런 모임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졌던
때에 늘 의욕적으로 활동하며 노년층으로 우리들을
노년에 한일도 한류로 이어나가리라.

No.

5

그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주체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

통일하기 위하여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한평생이 있리라.

또한 장로님들 주체주의에 바탕을 두는 여러 가지들을
위한 비전제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기여 하도록 노력 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소장품이나 생활품으로 남이 있어서
오랜 세월 두고두고 장로님들 느끼게 하
장기적 삶을 갖으리라.

지금 장로님들 이념적 해석 하는 것에서
우리들은 제각각 추구하고 되새기는 추구가
이것 ^바가 맞으리라?

Date

MOOREUK CO.

장로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뜻을 남겨 주신
소중한 선배 어른이십니다. 항상 복음.

장로님은 지금 여섯십 살도 끝날로 젊다고 결혼해서
말인이 부러워할 만큼
평생을 소담하고 사는 신앙하는 목사님 결의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 일을 승복하시면서도
말씀을 기쁘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신 인주께 감사함을 하고 있고
홍익의 집도 믿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주시는 믿어주시는 가정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와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두분이 무엇으로 수고리제를 풍만함이 이어갈것임에.

이제 두분이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고
하느님 앞에서 두분이 함께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